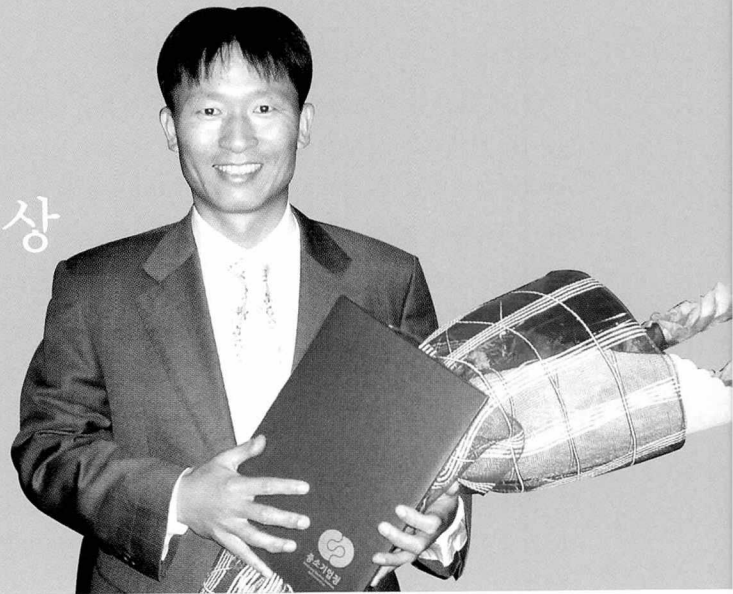


아이앤피 권영근 대표이사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서 중소기업청장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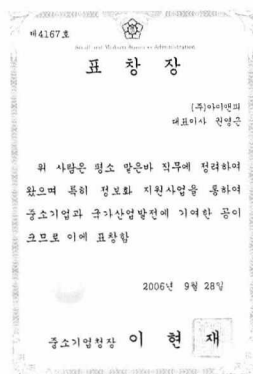
지난 9월28일부터 10월1일까지 개최된 제7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The 7th Innovative Technology Fair) 시상식 행사에서 정보화(POP)부문 유공자로 대구의 인쇄기업인 (주)아이앤피 권영근 대표이사가 중소기업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은 중소기업청에서 주최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의 욕을 고취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우수혁신기술박람회, 우수업체 및 유공자 포상, 기술혁신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중소기업기술인의 최대 행사이다.

이번 (주)아이앤피의 중소기업청장 표창 수상은 현재 진행 중인 회사전반의 혁신과 변화의 노력에 대한 성과 중의 하나이며, 생산정보화 및 자동화에 매진해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권영근 대표이사의 혁신리더십 아래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만들어 낸 성과로 평가된다.

(주)아이앤피(대표 권영근, www.infoprintings.com)는 1996년에 설립되어 토털 매킨토시 시스템과 전국적 네트워크를 통한 합판인쇄기술을 국내 최초로 시작하였으며, 리딩기업으로서의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주요생산 품목은 각종 서적,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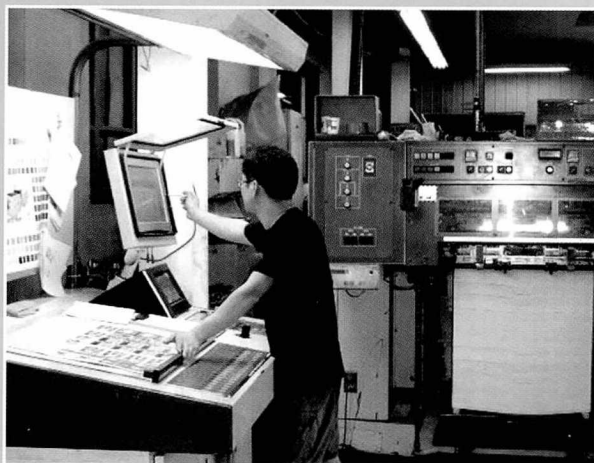
앨범 등의 제본물과 컬러명함, 컬러스터커, 전단, 카탈로그와 같은 상업인쇄물이다.

설립 초기 직원 7명에 인쇄기와 출력기 각각 1대씩에 불과했으나 생산현장의 디지털화를 통해 현재 120명의 직원과 인쇄기 14대, 디지털 출력시스템 8대, 기타 후공정 설비 등 전 공정 윈스톱시스템을 갖춘 매출 180억원 대의 종합인쇄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대구 북구 노원동에 위치한 아이앤피는 2004년 7월부터 12월까지 노원동 인쇄공장에 생산시점관리(POP)시스템을 구축, 2005년 초부터 본격 운영해 왔다. 또한 2005년 기존POP시스템에 제본공정까지 확대 구축하여 생산정보화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우선 인쇄라인의 14대 인쇄기에 구축한 POP는 △인쇄기의 가동 및 비가동 △인쇄시간 및 정체 △인쇄준비 △생산량과 가동률 현황 △생산성 분석 △일일생산실적 등을 실시간 데이터로 분석해 관리자에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렇게 자동으로 수집된 데이터들은 사내 네트워크를 통해 각 부서 작업자들에게 실시간 전달되고 관리자들은 모니터링을 통해 생산관리, 생산의뢰, 생산지시(작업



작업자가 POP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는 모습



실시간 생산현황관리 모니터링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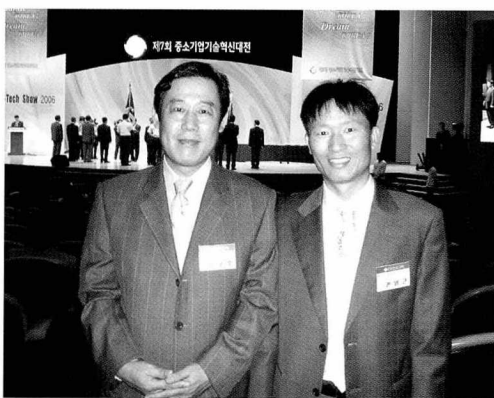
자가 POP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는 모습) 등을 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POP가 도입되기 전에는 인쇄판 전달과 생산실적·자재 및 의주관리·작업지시현황 및 보고서 등을 대부분 수기로 입력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에 대한 손실이 적지 않았다. POP를 지난 1년 6개월 동안 가동해본 결과 작업 준비시간은 50%, 데이터 도입시간은 86.6%, 서류 작업시간은 80% 이상 줄이는 정량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산실적을 DB화해 투명한 현장관리가 가능해졌으며 실시간 정보처리로 의사결정이 빨라졌고, 작업분배와 인력계획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인쇄공정의 최적화를 실현했다.

(주)아이엔피는 이번 POP시스템 도입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이 같은 생산정보화시스템을 기반으로 각종 서적물과 상업인쇄물 생산에 기업역량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아이엔피의 생산정보화 성공요인은 시스템구축 초기



정보화시스템을 공급한 아시아이리더스 김우호 대표와 수상 후 기념촬영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생산현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생산현장의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방침아래 사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생산현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바로 정보화였으므로 현장직원의 목소리를 겸

허하게 받아들이고 정보화 전담인력만이 주체가 아닌 현장직원들 모두가 추진팀원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지금 현재 안정적이고 원만한 POP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실시간 취합되는 생산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선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기업은 생산성 극대화가 최대의 과제이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정보화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정보화시스템 구축은 실패할 것이 분명하며, 경영진을 포함한 전사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은 생산정보화 성공을 위한 필수사항이다. 